

타히티 “무레아” 섬 住民의 환경투표偉力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골프場 건설을 阻止

지난 7월 초순 동아일보사 바리특파원이 보내온 「타히티의 환경투표」란 제목의 칼럼내용은 선진국이라고 우쭐대는 프랑스정부가 일본정부가 골프장건설을 반대한 무레아섬의 주민투표에서 찬성 1,499표 반대 1,900표로 부결되자 타히티를 이루는 여러섬들 중 하나인 이 무레아섬 住民의 환경보호의식을 신신하고 놀라운 것이라 평가. 세계적 관광붐이 일고있는 南太平洋의 타히티는 1880년 이래 프랑스의 屬領이다. 일반적으로 佛領 폴리네시아(TAHITI)로 통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이곳의 교포와의 친선교역등을 위해 '87년 11월 韓·佛親善協會(초대회장 朴尙東)를 창립했었다. 세계적인 관광명소로 각광을 받아가고 있는 이섬에 여태까지 골프장이 없었다는 사실이나 골프장건설계획이 주민투표에 부처졌다는 것 자체가 벌써 산뜻하고 부러운 일.

타히티의 무레아섬에 골프장을 건설하겠다는 발상

은 이곳을 자주 들락거리던 한 일본인 사업가로 부터 나왔다.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골프장을 만들겠다」는 건설계획이 연초에 발표되자 프랑스정부 관계자들은 이를 크게 환영했다한다. 이는 조그마한 섬의 건설경기를 부추길수 있을뿐만 아니라 최소한 300명의 일자리(캐디·사무·관료요원)를 줄수있기 때문. 그러나 교회와 환경보호단체를 中心으로한 原住民들의 조직적인 반대운동이 일어났다. 폴리네시아 지역의 환경보호운동은 지난 60년대부터 프랑스의 核실험에 반대하는 갖가지 투쟁을 계속해왔기에 그 역사도 깊고 힘도 무시 못할 정도였다. 프랑스의 한 신문은 이 투표결과에 대해 「原住民들의 환경보호 의식수준을 일본 프랑스정부와 사무라이資本이 큰코를 다친 셈」이라고 찬평했다는데 곳에따라 黃金萬能은 아닌 모양.

寄生虫조사 早期중단 是非

政府, 기생충감염率 격감들어 예산 삭감
學界, 회충등은 줄고 肝吸虫등은 증가

정부예산삭감으로 올해 실시예정이던 제 5차 전국 기생충 실태조사가 불발이 되자 대한기생충학회는 재실시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정부에선 71년부터 5년마다 전국규모의 「한국腸內기생충감염현황」을 조사·박멸사업을 실시해왔다. 그런데 71년 1차조사서 83.5%나된 기생충감염률이 76년 56.8%, 81년 35.1% 86년 7.6%로 격감되자 91년 실시될 예정이던 5차실태조사가 백지화된것. 기생충학회선 91년 기생충감염률이 0.1~0.2%로 예상되고 있긴 하나 이런 수치만으로 과거 「기생충왕국」과 같았던 국내기생충 감염을 낙관할수 없고 백지화하기 빠르다고 반박하고 있다. 대한기생충학회 白永漢회장(경희대 의대)은 ① 현재 감소된 현황이 선진국에 비해 아직도 20년전 수준이며 ② 현 감염人口의 大部分이 山間도서 등 소외지역이나 저소득층에 집중돼있으며 ③ 회충·편충등 土壤媒介性寄生蟲은 격감했으나 肝吸虫

(간지스토마虫)이나 요충같은 貝類媒介性 혹은 접촉 감염성기생충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5차실태조사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학계서는 現在의 상태에서 寄生病관리를 소홀히한다면 기생충 감염이 다시 높은 비율로 再流行될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편 肝吸虫의 權威學者인 慶北大醫大 寄生病學교실의 崔東翊교수는 수년전에 발표한 그의 논문에서 『1980년에 나온 肝吸虫症치료제 가운데 가장 치료효과가 좋고 副作用이 적다는 Praziquantel 약효를 過信한 나머지 淡水魚를 怯없이 生食하는 경향이 있어 肝吸虫症의 예방에 逆行하고 있다. 現在 100% 치료 효과가 있는 약제는 없으며 慢性肝吸虫症환자의 약 10%에서 그 原因은 알수 없으나 原發性肝癌이 생기고 있음을 銘心해야한다』고 경고한바 있다. <浪>